# 보도 자료

**전세계** **120만 회원을 보유한 로타리, 한국에서 세계대회 개최**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의 세계대회 2,925억 원의 경제 효과를 수반

**한국 고양시 (2016년 5월 11일)** – 벨리즈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160여개 국가에서 5만 명 이상이2016년 5월28일부터 6월1일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로타리의 제 107차 세계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5월 2일 현재 외국 국가들 중 가장 많이 2016 한국 세계대회에 등록한 나라와 회원 수이다: 일본(7,000), 미국(2,500), 대만(2,300), 필리핀(1,100), 인도(730), 방글라데시(540), 네팔 (390), 호주(370), 캐나다(280).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2만 3,698명의 회원이 등록하였다.

한국 관광공사는 로타리 세계대회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2,925억 원 (292,492,284,583원)에 이를 것이며,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로타리 세계대회와 관련, 식당, 호텔, 서비스,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도 거의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년 각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로타리 세계대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참가하는 회원들이 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동료애와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대회 성격과 다국적 참여라는 점에서 ‘미니 UN (mini-United Unions)’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회장인 킨텍스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온 로타리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와 에너지, 칼라, 열정의 도가니될 전망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본회의 초정 연사를 포함해 유명 연사들의 공연과 감동적인 연설을 듣게 된다.

* [싸이(PSY)](http://www.ygfamily.com/artist/About.asp?LANGDIV=E), K-팝스타
* [라닐 위크레미싱게(Ranil Wickremesingne)](http://www.pmoffice.gov.lk/biography.php?p_type=PM), 스리랑카 총리
* [게리 넬(Gary Knell)](http://press.nationalgeographic.com/biographies/gary-e-knell/),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NGS) 회장 겸 CEO
* [다난제이야 헤티아라치(DANANJAYA HETTIARACHICHI)](https://www.iseesomethinginyou.com/), 세계 연설대회 우승자
* [레베카 마틴(REBECCA MARTIN), PhD](http://www.cdc.gov/globalhealth/leadership/martin.ht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소아마비 퇴치 활동을 이끌고 있는 CDC의 글로벌 헬스 센터(CGH) 디렉터

한국 로타리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의 조직위원회(HOC)](http://www.riconvention2016.org/2015new/en/introduction/outline.php)의 지원으로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http://www.rotary.org/)가 개최하는 이번 세계대회는 한국 정부는 물론 경기도 및 고양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궁궐, 박물관, 쇼핑 센터, 식당, 강남 등 한국 및 서울의 매력은 물론 한국인 회원들의 친절한 환대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비무장지대(DNZ)를 비롯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서울의 여러 궁궐과, 강남 패션 거리를 주로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구 조직위원장은 “160 여 개 국가에서 5만 명의 회원이 2016 한국 세계대회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대회는 ‘세계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 봉사’라는 기치 아래 모인 글로벌 공동체의 영향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월28일(토) 오전 8시30분에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3Km 구간을 행진**하면서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3Km 평화의 행진**’이 계획되어 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행진에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로타리의 인도주의 봉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로타리 사진 전시회**도 펼쳐진다.3Km 평화의 행진이 끝나면 이 사진 전시회는 6월 1일부터 코엑스 동문 광장으로 옮겨진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KTO) 사장은 로타리 세계대회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광과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국제회의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 분야)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KTO는 한국의 미와 매력을 전 세계 로타리안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첫 로타리클럽은 1927년 서울에서 창립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1,625개의 로타리클럽과 6만 4,149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네 번째의 로타리 강국이다. 한국의 로타리 회원들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영유아들의 보건 증진 프로그램, 이민 가정의 한국 적응을 돕는 다문화 아동 도서관 건립 그리고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풍림 조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다.

한국의 로타리클럽들은 지구상에서 [소아마비](http://www.endpolio.org/)를 퇴치하기 위한 로타리의 최우선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로타리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985년 이래 1조 4,000억 원(미화 15억 달러)을 기부한 외에도 수많은 회원들이 면역활동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봉사해 왔다. 한국 로타리 회원들도 미화 1억 4,600만 원(미화 약1,46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으며, 소아마비 발병국에서의 면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로타리 소개**

[로타리](http://www.rotary.org/)는 가장 심각한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전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자치령에서 120만 회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소외된 가정 돕기에서부터 소아마비없는 세상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The Newsmarket](http://rotary.thenewsmarket.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Contacts)**:

Howard Chang (US): +1 847-866-3408, howard.chang@rotary.org

Katie In (Korea): 82 2 2022 8271, katie.in@edelman.com

Kate Yun(Korea):82 2 2022 8271, kate.yun@edelman.com

**# # #**